

次 期 美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든간에 국방과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에 접하게 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빠른 시간내에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교육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기 위하여 제일먼저 국방비를 2백50억불 가량 삭감하기로한 것은 미국경제의 쇠퇴와 관련하여 美 국민에게 공감을 주는 실로 자유민주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러나 국방비를 레이건행정부 전성기 당시의 수준으로 증강해야한다고 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믿음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소련의 군사력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는 기술의 발전, 특히 우주에 기지를 둔 對탄도미사일 방어에 의한 평화유지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은 현실감각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년간 미국정부가 국방예산 상정액의 6백억불 이상을 삭감시킨 마당에 더이상의 대폭삭감이 강행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되고 세입이 줄어들며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도 줄어들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과도한 국방예산증강이 적자의 주범이며, 한 국가의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분야에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차기 美 행정부는 좋은 싫든간에 현 국방장관 Carlucci의 실용주의 정책, 즉 국가의 방위력과 안보를 저해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국방비를 감축하는 정책, 다시말해서 배당된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을 시도해야할 것이다.

모든 軍은 장비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획득전략을 지지하여야 하며 차기 美 대통령도 이 분야에 주력해야 한다. 국방성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Packard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했던 레이건대통령과는 달리(이 의견은 백악관과 의회 내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차기 美 대통령은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간의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개인적인 지도력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 어떤 국방장관도, 국내외의 일상적인 군사활동과 관계있는 그 누구도 혼자서는 대통령 만큼 효과적으로 조달문제를 추진해 갈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행정부가 해결해야할 2번째 문제는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는 전략적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급격한 국제간의 무기교역 추세이다. 연간 국제방산물자 시장은 9천억불 규모로서 매일같이 수많은 업체와 강대국 정부들이 방산물자를 거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산물자 시장은 본래 시장이라는게 그래야 하듯이 자유경쟁시장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특별한 구매층, 국가 또는 집단에 의해 조종되기 쉬운 시장이기도 하다.

Dwight D. Eisenhower 前 美 대통령이 날로 심해져가는 군사, 산업의 복잡성이 미치는 힘에 대해 미국인에게 경고했듯이, 오늘날 국제적인 조직망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전쟁과 평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무기판매로 인하여 야기되는 정치적, 군사적 결과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미사일을 판매하였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 미사일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사우디가 못미더워서가 아니라 이러한 非常例의인 무기거래가 무책임한 국가의 무장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향후 무기거래의 향방은 세계의 경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정하게 해줄수 있는 요인이 될것이다.

一 例로서 현재 중국은 세계 제5위의 무기판매국으로 올라있고 일본은 최근 미국의 F-16과 대등한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전투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또한 AEGIS 순양함과 공격잠수함도 건조키로 하였다. 싱가포르도 세계최고의 小火器 판매국이 되었다.

물론 아시아의 防産業體는 서방세계의 기술에 저렴한 노동력을 접합시킴으로써 미국과 서유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일취월장하는 아시아의 방위산업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는 「미국이 가격위주로 독점적인 기술과 일반무역분야에서의 영향력등을 무기로 삼아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아시아의 방산제조업체들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북경, 일본 기타 아시아 자본국가들과의 투자노력과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협정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미국이 서유럽으로 하여금 날로 성장하는 태평양지역을 무시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의 업체들과 합작사업을 벌이도록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명백한 것은 서방 선진국들이 세계 방산시장의 추세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실패하면 무역 불균형과 전쟁을 유발시키는 새로운 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서방세계의 외교정책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NATO의 방위소요 및 방위지출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만들지도 모른다(이것은 미국의 對유럽 경제전술과 상반되는 것이다).

**신** 속하고 실제적인 해답을 요하는 또다른 문제는 「레이건 행정부가 국가의 안보

정책중 군사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낸 업적은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업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장차 유럽의 방위 및 외교정책을 올바로 측정하지 못할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의 부정적인 측면은 그라나다 공격으로서 이는 사자가 쥐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었다. 동시에 레이건 행정부는 이란-콘트라사태로 미루어 보건데 중동과 남아메리카에 대해 적절한 군사적 계획을 갖지 못하였었다.

그외에도 마치 SDI가 핵감축을 위한 만병통치약이요 INF협정이 유럽내에서의 핵위험을 일소시킬듯이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모든 군사전문가들이 SDI가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INF협정도 유럽의 재래식무기 불균형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SDI와 INF협정이 낳은 유용한 부산물도 있기는 하다. SDI가 부분적으로는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무기개선을 위한 연구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필경 차기 미국대통령은 전략적이고 위협적인 무기에 대한 소요를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제로서 SDI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INF협정이 실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차기 美 행정부가 이러한 일에 주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일일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간의 산업협력을 촉진시킴으로써 NATO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누구도 앞을 내다보는 기술을 위한 레이건 행정부의 국방비증강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경제·외교정책과 더불어 소련의 야욕을 억제시키고 군비조정 난국타개에 도움을 준 행동이었을 것이다.\*

〈MILTECH 88/6〉

—해외사업부(譯)

**어느** 누구도 美 의회가 금년에 나토의 방위분담 개선에 단지 입에 발린 도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할수는 없다.

美 上院의 방위비 특별예산 소위원회는 지출예산안에는 西유럽 동맹국들과 직접 대화하고 나토에 대한 유럽의 부담액을 각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질 「방위분담」 특별협상자의 상주를 위한 소요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예산안은 유럽의 방위비 분담이 증가할 때까지 미국의 랜스 미사일, 전투기 기동성 개선(EFM), 중거리 地對空 미사일등에 대한 지출계획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나토의 랜스미사일 개선비용의 약 50%와 EFM비용의 65% 이상을 제공하기로 서명하였다. 약 3천만불이 이러한 폐기의 결과로 미국에 의해 保持되어질 것이다.

의회로부터의 이런 압력이 과연 성공할까? 소위원회가 이 의안을 이미 승인한 이상 아마도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필요한 것같고, 나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의회 역할의 일종의 천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유럽 각국의 의회는 방위비 분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유럽의 방위비 분담액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만아니라 NATO의 지도자들 중에는 이러한 문제를 美·蘇간에 체결된 INF협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의회는 상호문제점들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오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연성을 보이는 것같다. 더욱이 미국은 이러한 하나 혹은 그이상의 방위계획들의 외부에 위치한 스스로를 갑자기 발견할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서독과 프랑스, 이탈리아에는 미국의 도움없이 효과적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을 제조할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 사실 프랑스의 Aérospatiale, Thomson-CSF社와 이탈리아의 Selenia가 프랑스-이탈리아간 MSAM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었다.

이런일이 없었다면 美 국방성은 미국용 개량 MSAM 건조계획보다 더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破局的 여름** : 7월 4일까지 프랭크 칼루치 美 국방장관은 조달개선, 국방계약업체들과의 관계, 페르시아만에서의 미국의 정책들과 관련하여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더우기 국방성의 분석가들조차 적화력지역에서의 교전규칙에 직면했을때, 결정체계에 포함된 인위적인 요소들이 더 위험한 요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고도기술의 군사 경보체계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일어날수 있을까?

美 의회는 부패한 컨설턴트나 일부 탐욕스러운 계약자들에게 단지 양값음하기 위하여 레이건 행정부에 대한 반대자들의 의도대로 방위비 지출을 삭감할 것인가?

John Lehman 前 美 海軍長官에 의해 1980년 대초에 시작된 美 해군전략에 대한 반대자들이 새로운 항공모함 건조와 美 전력의 장기 계획을 위한 기본단위인 航母船團 계획의 취소와 해체를 위해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란의 민항기 사건을 이용할 것인가?

7월에 만일 사람들이 미국 언론 매체와 의회를 신임했으면, 국방성 조달에는 단지 邪惡한 상담자들과 도둑같은 계약자들만이 참여한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무심코 미국의 방위 매체는 그 자체의 연막을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의회도 이를 이용한다.

이러한 연막뒤에는 언론매체가 좀처럼 발견해낼수 없는 진실 즉 국방성의 장비획득 방법이

복잡한 관료정치 결과로 까다로워지고, 미군으로 하여금 전력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적에 대한 전략이 결핍되어 있어, 구매 전술이 양질의 제품을 얻는 것 보다는 비용의 절감을 줄이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이 숨어있다.

나는 어떤 분석가가 만일 자기가 국방장관이라면, 5백불짜리 해머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흘려서 다른 그러한 「비용상승」의 증거에 언론매체의 포화를 두게 할수 있을 것이고, 記者들은 그러면 더욱 실용적이고, 거칠고, 잘 강화된 포괄적인 장비획득전략으로부터 절약될수 있는 수십억에 관해 알수 없게될 것이라고 농담했던 것을 기억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 외국 계약자들간의 합작사업 및 기타 공동사업의 수는 그 가능성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아직도 실질적인 절약을 이룰수 있는 高價의 단일 공급계약들도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軍은 많은 품목들을 구입하였으나 이중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매할수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발행부수가 높은 신문의 어떤 기자도 이러한 전술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해군전략을 원상 복귀시키고, AEGIS체계로부터 전략적 초점을 회피시키려는 것은 우리 시대에 계획하고 있는 전쟁의 진화에 대한 진정한 사실을否認하는 것일 것이다.

효율적인 면에서 航母船團은 수동적인 억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능동적인 것이고, 항공기를 위한 플랫폼과 機動을 제공한다.

해군 전략에 대한 반대자들은 해군전략이 미국과 유럽의 연합전략의 중요성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더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정치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것 같다. NATO가 INF협정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한 그것은 더이상 문제가 안된다.

AEGIS는 아마도 海上에서의 多重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일 것이다. 강력한 해군이 유지되길 희망한다면 AEGIS를 사용하지 않을수 없다. 이란 민항기 사건의 교훈은 인위적 요소, 즉 명령자의 개인적인 결정이 만드는 책임과 AEGIS C<sup>3</sup>I 네트워크사이의 연계가 가능한한 항공기의 자폭안전 판단 능력에 가깝도록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월에 미국이 국방성과 방위 계약자들 사이에 존재해야만 하는 담합과 경쟁관계에 대해 결정할수 없다는 것이 日刊 방위매체의 보도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들은 가깝고,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여야 하는가, 혹은 敵이어야만 하는가? 만일 매우 친한 파트너라면, 국가는 共謀로 인한 붕괴의 위험이 있다. 만일 敵對관계라면 국가는 경쟁적 사기 행위의 위험이 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만사를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으나, 어떤 씨를 뿌릴 것인지는 아직 늦지 않았다. 빠른 안정을 개진시키기 위한 위원회나 혹은 심의회보다 방산업체와 정부의 전문가들이 차기 대통령 임기동안 정직하고 비용 효과가 있고, 양질의 생산이 장기간 보장되는 개선된 방법들을 계획하고 입안해야 한다.

국방획득국(defence acquisition agency)을 설립하는 것은 지지를 얻어내는 한가지 방법이 될수 있다. 이곳에서는 경험있는 획득전문가들이 일하게 될 것이다.

打開策 : 美 육군에는 청신호인 輕공격헬기 실험의 실험 및 확인단계에 관하여 국방성의 방위획득위원회는 아무런 차질이 없음을 밝혔다.

10월초에 육군은 각 輕공격헬기 생산합작팀에 1억6천5백만불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결국 Bell / McDonnell Douglas나 Boeing / Sikorsky 팀중의 하나가 2천1백대의 輕공격헬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MILTECH 88/8>